

#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 익산시, 1시민 1악기 강사진 재능기부...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개최

익산시의 1시민 1악기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사들의 재능기부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악기 기증까지 나눔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나눔 선순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먼저, 1시민 1악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진이 봄바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을 선사한다.

강사진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익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봄날의 향연 을 주제로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피아노와 플루트, 첼로 등을 활용한 클래식 연주와 국악 연주, 통기타, 만



돌린 우쿨렐레 등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연 나눔을 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열린 익산역 잔디광장 공연을 시작으로, 28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앞 새세대광장, 5월 13일 익산문화원 야외공연장, 6월 10일 익산역 대합실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에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1시민 1악기 교육생은 물론 일반 시민, 관광객까지 함께 어우러지며 모든 시민이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시는 강사들의 공연 나눔에 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악기 기증·나눔 프로젝트로 예술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시는 지난해 1시민 1악기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100여점의 악기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악기는 수리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대여를 시작한다.

악기 기증을 원하는 시민들은 문화관광산업과로 문의하면 되고 기증한 시민들에게는 기부영수증이 발급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 섬에 케이팝 유망주들이 뿔뿔히 났다.

## K-pop 유망주들, 선유도에 반하다

### 호원대 K-POP 학부, 바다를 배경 다채로운 재능 선보여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 섬에 케이팝 유망주들이 뿔뿔히 났다.

대중예술가와 대중음악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내 대표적인 케이팝 관련 학과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대중음악 유망주들을 양성하고 있는 호원대학교 K-POP 학부가 지난 13일과 14일 아름다운 경관으로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고 불리는 군산 선유도에 방문했다.

교수진과 재학생 100여명이 함께한 이번 여행에서는 군산 선유도 바다를 배경으로 학생들이 재치있는 아이디어와 케이팝 유망주다운 재능을 선보이며 팀별 여행 브이로그, 솟춤 영상 촬영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들이 제작한 영상들은 학부 유튜브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어 고군산군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호원대학교가

위치한 군산의 대표 여행지이자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2024 한국관광100으로 선정되고 CNN이 선정한 아시아의 숨은 여행명소로 국내 유일 선정된 고군산군도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호원대학교 신연아 교수(K-POP학부장), 운영팀 교수 김기원 교수, 최부현 교수(산학협력단 부단장), K-컬처테크융합원 원장과 군산시가 협업을 시작됐고, 학부 학생들이 직접 사진담사 등을 통해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김봉근 문화관광국장은 “호원대학교 K-POP 학부의 차세대 대중음악역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유망주들에게 학창시절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제작한 각종 영상물들은 젊은 MZ 세대들에게 고군산군도를 알리는 데에 특특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나선다

### 내수 활성화 추진 관련 부서 협업 회의... 사업 발굴 · 확대 계획

군산시가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갖고 부서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실시된 회의는 장기회피는 소비 둔화 우려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 ·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내수보완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내 내수진작과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 · 관광을 중점으로 5개 분야별 사업을 발굴 ·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소비자, 소상공인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상권 이용 협약

등을 통해 내수 붐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지역대표 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 ·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 4일, 현지 살아보기 여행상품 운영(숙박+특화프로그램 약 30% 할인 지원), △수제맥주 페스티벌 지역 동반성장 강화(입장권 구매 시 군산사랑상품권(5,000원) 지급, 소상공인 음식부스 참여 확대 등), △박물관 유료 이용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등 관광객 유치확대에 주력하고, △상권별 프리마켓 운영, △구도심 상권 내 소비촉진 행사(대한민국 동행축제, 구도심 시간마을 축제 등)를 5~7월 지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상권과 상생을 위해 배달의명수

내, 시가맹점 공동행진, 시즌별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일일동체 프로젝트 추진,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다 조정 등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요금 동결(상 · 하수도, 쓰레기봉투)과 착한가격 업소 확대 발굴로 물가안정 유지에 노력하고, 소규모 어가 직접 직불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및 이사회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해방기에도 소비 문화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김임준 군산시장이 2023년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군산 고군산군도의 멋스러움을 알렸다.

군산시는 14일 새만금컴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지역 기초단체 협의회는 지난 2012년 창립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물론 등 28개 자치단체장이 참가한다. 제8회 회장은 남원권 을름군

수로 강 시장은 제7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결산보고와 건의 및 홍보 안전 설명, 섬 발전 관련 발표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시는 2023년 고군산군도 홍보의 해를 맞아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경관을 홍보했다.

고군산군도는 CNN,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18곳 중 한 곳

으로 선정됐으며 문화관광체육부-한국관광공사,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16개의 유인도와 40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자 자연이 창조해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다.

강 시장은 “발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은 인도교와 트래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50만원 전액 지원

익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공공요금 및 물가안정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작년 대비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150만원)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액 중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하며, 30만원 초과 ~ 150만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다이어움)으로 지급한다. 단, 공고일 전 폐업

자나 유희·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익산시 홈페이지(https://www.iksan.gok.kr/)에 접속한 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내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 등록증명 사진을 미리 준비한 뒤 사진 첨부란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민원대응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익산시가 하절기 및 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업무태세에 돌입한다.

시는 악취발생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상황실은 악취측정 차량을 이용해 악취를 분석하여 측정되는 악취성분을 단서로 해당 악취의 발원지를 추적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 특히 야간 조업 사업장에 대한 포집단속으로 위반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를 관리한다.

시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2단계 악취저감 정책에 따라 축산 악취를 집중 관리한다.

축산시설 비상연락망 구축 및 상시감시관 운영으로 악취 발생 시 즉각 저감 조치하며 24시간 악취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직장인 위한 승마 강습 5월부터 야간개강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 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장인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시는 쾌적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스포츠 대명사로 불렸던 승마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대중화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공공승마장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승마강습을 진행한다.

야간 승마강습은 평소 승마를 즐기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해 평일 저녁에 승마강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습반은 기수제로 총 6개 기수를 운영하며 기수당 8명씩 24명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승마장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강습은 주2회 5주간의 총 10회 프로그램이고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